



韓 日 中

기생충 관리 대책회의

参加記 〈下〉

李 泳 俊

寄協사업과장

東京都予防医学協會를 방문하여 평소 잘 알려진 이 분야의 원로이신 稲見一清씨로부터 조용한 어조의 현황을 들었다. 그도 종전후 사회경제가 황폐화된 혼란의 시기가 있을때 국가재건의 일부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국민보건과 직결되고 있는 기생충 박멸과 예방이라고 단정하고 이 분야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을 거두었고 성공 이후 여력을 예방의학으로 전환하여 오늘과 같은 일본국민들의 보

건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현실을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현재도 기여하고 있다는 그의 말을 듣고보니 현실사회에서 쉽게 이해를 구하기 어렵고 편견적으로 보는 보건분야에서 일평생을 종사해온 그의 표정을 보면 남모르게 숨겨진 고행스러움을 읽을수 있었다. 그와 의견을 나누던중 우리로서는 부러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즉 내년 2월경부터 발효예정이라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된다는 것

이다.

요약하면 40세 이상의 국민은 매년 기준에 의한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는 현재 일본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남자가 72세 여자가 77세로서 고령화사회가 도래하여 현재 980만명에서 서기 2009년에는 1,900만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니 한마디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전에 조기진단 즉 예방의학을 철저히 전개하여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1980년도 일본 전국민이 치료비로 병원에 투자한 돈이 11조 9805억円인데 예방의학으로서 이러한 막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는 1933년에 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거 ① 기생충검사 ② 노검사 ③ 심장검사 ④ 빈혈검사 ⑤ 혈액형검사 ⑥ 세균검사 ⑦ 폐기능검사 ⑧ 척추검사등 2세국민들의 보건관리를 다양하게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이상적인 것은 학생기생충검사수수료를 위시한 제검사수수료가 현실에 가까와 검사기관에서는 기술인력확보와 시설투자 및 개발 관리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가검물을 수집제출하는 학교 직장등 집단기관과 검사기관과의 조직관계가 의무적인 일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0월 9일 우리는 동경의 이웃 도시인 横浜市소계 神奈川県予防疫医学協會集团検診센타를 방문하였다. 예방의학협회중에서 시설과 조직운영이 잘되어 있다고 평소 들은바 있어 우리는 관심을 가졌다. 검사 1부장인 森雄一씨의 안내로 현황과 현장을 둘러보니 검사는 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업무를 전담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10여대의 완벽한 시스템의 순회검진차량과 학생 노검사는 반전체 학생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발전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성장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판단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집단검진센타와 떨어진 협회사무실을 방문 컴퓨터화된 인간도크의 완벽한 진료 시스템의 운영상황과 시설을 둘러보니 향후 현재의 시스템보다 더 발전적인 시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일 강행군처럼 일정에 쫓겨 일요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우리는 愛媛県 松山市에서 개최되는 예방의학 전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羽田공항에서 국내비행에 올랐다. 1시간 30분이 소요된 비행에는 일본연안 절경중의 하나인 세도나이카이(瀬戸内海)의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었다. 마치 우리나라 남해의 다도해처럼 크고 작은 점점이 드리운 섬과 내해의 경관들이 관광사진 같았다. 愛媛県予防疫医学

協會 사무국장 檜垣通夫씨와 인사를 나누고 1,500여명을 수용한다는 松山市民會館 회장은 전국에서 참석할 보건관계자와 양호담당자등 관계 인사들로 만원이었다. 토의와 발표 주제를 요약하면 ① 앞으로의 기생충예방 및 관리와 제문제 ② 유아의 건강관리와 대책 ③노인기의 건강관리와 대책 ④ 인스턴트 식품이 인간생활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 보건분야를 다각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도 현재 노인문제를 중요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건강진단도 실시하는등 노인문제의 사회적인 중요성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인것 같다. 마침 대회장에서 名古屋공중의학연구소 소장인 加藤勝也박사를 만났으며 한인수 부장님과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며 자기채취기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 3일간의 松山에서의 대회 일정을 끝내고 우리는 귀국하기 위해 大阪으로 이동하였다. 귀국 3일전 우리는 일본이 고도요 문화도시라고 하는 奈良을 다녀왔다. 백제문화가 전래되어 그 영향을 입은 奈良의 유적들을 ……

10월 17일 우리일행은 13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일행 모두가 회의자료와 참고인쇄물로 한집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되는 일주일간의 회의에 참석하

기 위해 함께온 일본 중국대표들의 요청에 의해 10월 20일 백제문화회를 소개하기 위해 충남 부여를 2일간 찾았다. 마침 백제문화회가 시작되었고 백제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과 사례를 듣고 그들은 긍정과 새삼스러운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오히려 늦게 노을이든 백마강의 나룻배를 타고 고란사를 올랐을때 노을이 지는 백마강의 정취를 카메라에 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제부터 무거운 짐을 진것 같다. 집단검사의 추진과 방법이 일본과 유사한면이 있는 우리는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관리를 어떻게 추진 정착시킬 것인가?

끝맺으며 번외로 느낀것이 있다면 일본은 국토관리를 천연적으로 잘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산야처럼 천연적으로 잘 타고난 것은 아니라해도 푸른지대를 조성하고 산림을 원시림 형태로 가꾸고 일부 다녀본 곳은 도시속에 수많은 공원을 품고있는 인상을 받았다.

86년 아시아경기대회, 88년 세계올림픽을 거국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우리는 모두가 준비위원의 가짐으로 국토를 가꾸어 그때 다니가는 세계인에게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자 “2000년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라는 WHO의 슬로건을 되뇌이며 국민보건분야에서 한 맥락을 짚어가는 일원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뛰련다.